

“오늘 후회없이 뚝다”... KIA 이유 있는 상승세



윌리엄스 감독



825일만에 3위... 시즌 초 야구 전문가 예상 뒤엎는 선전 탄탄한 5선발·막강 필승조 활약에 위기 없이 순항 야수 부상 공백, 베테랑 경험·신예들 패기로 메꿔 윌리엄스 감독, 승·패 연연 않고 다음달 새 게임 집중

KIA 타이거즈가 '오늘'에서 '미래'를 찾고 있다. 시즌 전 KIA는 우승 후보와는 거리가 멀었다. 타이거즈 사상 첫 외국인 감독인 윌리엄스 감독이 "우승을 위해서 왔다"고 언급했지만 올 시즌 KIA의 상위권 질주를 예상하는 이는 많지 않았다. 그러나 KIA는 지난 25일 삼성전 승리를 통해서 2018년 4월 22일 이후 825일 만에 3위 자리에 올랐다. KIA는 치열하게 전개될 순위 싸움에서 가장 주목받는 팀이기도 하다. 마운드가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다. 지난해 KIA에서 규정 이닝을 소화한 투수는 양현종, 윌랜드, 터너 뿐이다. 시즌 내내 4-5선발 오디션이 전개되면서 투수진이 들쭉날쭉했다. 두 외국인 선수의 성적도 좋지 않았다. 규정이닝은 소화했지만 두 사람이 합작한 승수는 15승에 불과했다. 그러나 지난 시즌 2.29로 평균자책점 1위에 오른 양현종이 16승을 책임지면서 세 선발의 승수는 31승. 올 시즌은 선발진 무게가 다르다. 지난 28일까지 67경기를 소화한 KIA는 5선발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캠프부터 전개된 선발 경쟁의 '승자' 이민우와 임기영이 4, 5선발 자리를 책임지면서 계산이 서는 마운드가 꾸려졌다.

두 선수의 경우 이닝 관리가 이뤄지면서 로테이션을 쉬어가는 등 세밀한 조정은 이뤄지고 있다. 그래서 한 차례 대체 선발 김기훈이 투입됐지만 5선발 체제는 굳건하다. 임기영이 63.1이닝으로 67이닝을 채우지 못했지만 남은 네 명의 선발은 모두 규정이닝 이상을 소화해주고 있다. 이닝은 부족하지만 임기영은 6승을 기록하는 등 5명의 선발은 27승을 쟁했다. 뒷문도 든든하다. 초반 문경찬이 완벽하게 승리를 지켜줬고, 문경찬이 흔들리자 전상현이 그 자리를 메웠다. 박준표도 불펜의 중심을 잡아주면서 KIA의 마운드는 큰 위기 없이 순항 중이다. 타석에서 잇단 부상 변수가 발생했지만 '잇몸' 등의 활약으로 우려했던 후유증은 크지 않았다. 장영석의 부진, 류지혁의 부상이 겹친 3루는 나주환이 '경험'으로 채웠고, 김민빈이 연달아 부상으로 빠졌지만 김규성이 '패기'로 자리를 지키면서 매일 성장하고 있다. 무엇보다 '오늘'을 기다리고, 집중하는 부분이 KIA의 큰 힘이다. 윌리엄스 감독은 선수들에게 '오늘'을 강조하고 있다. 그라운드에서는 최선을 다해 승리에 도전하고, 조령탑이 꺼지면 결과는 모두 지우고 새로운 하

루를 맞을 준비를 하도록 강조하고 있다. 실패의 여운과 성공의 자만을 남기지 않는 '초심'이 KIA의 모토다. 3위 수성과 2위 도전이라는 목표로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하게 된 28일 윌리엄스 감독은 "새로 올라오는 선수들이나 기회를 받는 선수들이 편안함을 느끼고 있다. 김규성의 경우에도 세밀한 부분을 많이 요구하고 있고, 5회 교체로 뺄 때도 있는데 매일 배우고 있다. 다음날 바로 경기에 나갈 준비가 되어있는 등 준비하는 자세가 좋다"며 "우리 선수들 모두가 그날 경기에서 이기기 위해 모든 것을 함께하고 서로 돕고 있다"고 말했다. 또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매일 이길 수는 없다. 하지만 선수들이 매일 똑같이 이기기 위해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있다. 선수들이 야구장에 나오는 것을 기대하고 즐긴다 그게 가장 중요하다"며 "시즌이 어떻게 끝날지 모르지만 오늘 경기에 집중하고 준비를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첫 시즌'이라는 것은 윌리엄스 감독에게 약점보다 강점이 되고 있다. 낯선 리그에서의 첫 시즌이지만 윌리엄스 감독은 "첫 시즌이라서 지난해 오늘처럼 평가하고 비교할 수 있는 데이터가 없다. 그래서 나는 매일이 새롭다"며 "오늘이 가장 중요하다. 오늘 승리를 했던 패배를 했던 우천취소가 됐든 오늘 할 것을 하고 내일을 준비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윌리엄스 감독의 말대로 KIA는 9회 마지막 아웃 카운트가 나올 때까지 라인업의 큰 틀을 유지한 채 모든 전력을 쏟는다. 내일을 생각하지 않는 KIA의 '오늘'이 역설적으로 내일을 만들고 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덕아웃 T 특독

▲너무 아름다워서 = 올 시즌 KBO리그에 첫발을 내디딘 '초보 사령탑' 윌리엄스 감독은 9개 구단 감독들에게 와인선물을 하고 있다. 선물을 받은 타 구단 사령탑들도 답례품을 전달하면서 윌리엄스 감독의 '와인투어'는 KBO리그의 화제가 되고 있다. 윌리엄스 감독은 지난 21일 한화와의 원정경기에서 최원호 감독대행으로부터 커다란 인사주를 선물 받았다. 놀란 표정으로 인사주를 들고 찍은 사진으로 화제를 모았던 윌리엄스 감독. 그는 28일 경기전 취재진으로부터 "인사주를 마셨느냐?"는 질문을 받았

인삼주 받은 땀 감독 "너무 예뻐서 못마셔"

다. 윌리엄스 감독은 "장식용이다"고 말해 사람들을 웃겼다. 그는 "먹기에 너무 예뻐다. 감독실에 테이블이 있는데 가운데 장식용으로 뒀다"며 웃은 뒤 "나는 작은 선물을 했는데 받는 게 커지는 것 같다. 뭔가 다른 것을 생각해봐야겠다"고 언급했다. ▲좋은데 아쉬워요 = 한 뒤 쉬고 돌아온 임기영의 소감은 "좋은데 아쉽다"였다. 임기영은 지난 26일 삼성과의 홈경기에서 시즌 12번째 선발 등판을 소화했다. 13일 키움전 선발 이후 한 차례 쉬었던 임기영은 이날 6회 이상곤에게 투런포를 맞으면서 5.1이닝 4실점을 기록했다.

윌리엄스 감독은 실패했지만 타선의 지원을 받은 임기영은 경기가 8-5로 끝나면서 시즌 6승에 성공했다. 푸쉬고 돌아오면서 밸런스는 좋았지만, 이닝은 아쉬움이다. 임기영은 "비로 등판이 밀리기도 했지만 어려움은 없었다. 오히려 오랜만에 던지니까 밸런스가 좋았고, 볼에 힘이 있었다"며 "하지만 5, 6회 넘어갈 때가 아쉽다. 홈런은 내가 잘 못해서 맞은 것이고 이닝을 길게 못 해준 게 아쉽다. 다음에는 이닝에 더 신경쓰겠다"고 밝혔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안경현은 일베? ...광주 여권발언 논란

‘호남을 다른 나라로 비하’ 유튜브서 발언...팬들 “퇴출하라” 항의

안경현 SBS Sports 야구해설위원이 광주를 비하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으로 논란의 중심에 섰다. 문제의 발언은 최근 SBS Sports 유튜브 채널에 공개된 'o x TV' 서 나왔다. 안 위원은 '최고의 포수를 찾아라' 편에서 진갑용 KIA 타이거즈 배터리 코치와 통화를 하다 "나는 광주 못 간다. 가방에 항상 여권 있다. 광주 가려고"라고 언급했다. 옆에 있던 김정준 해설위원과 윤성호 SBS스포츠 아나운서는 이 발언에 웃음을 터트렸고, 화면에는 '광주 가는 그날까지 호트(화이팅)'라는 자막이 노출됐다. "여권이 있어야 갈 수 있다"는 말은 '일베저장소'

등 극우 커뮤니티에서 호남지역을 한국과 다른 별개의 도시, 나라로 비하할 때 쓰는 표현이다. 논란이 커지자 제작진은 공식 입장을 내놓았다. 'o x TV' 제작진은 "안 위원은 인기 구단인 KIA 타이거즈의 광주 구장 경기(지방 출장)가 1순위로 설자에게 주로 배정돼 서운했던 심정을 에둘러 표현했으나, 긴 멘트가 짧게 편집되는 과정에서 다르게 해석될 수 있는 여지를 남겼다"고 설명했다. 이어 "광주가 다른 나라 가기만큼 어렵고, 그래서 더 가고 싶다는 심정을 간접적으로 전달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으로 전제적인 맥락이 생략되는 실수가 있었다"며 "안경현 해설위원의 속내를 잘못 해석될 수 있게 편집한 부분과 불필요한 오해를 야기시



킨 점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은 사과의 말씀드립니다"고 밝혔다. 하지만 야구팬들의 반응은 차갑다. 야구팬들이 해당 방송사 독자 게시판에 '지역 혐오 발언을 하는 해설위원은 퇴출해야 한다', 'SBS 스포츠는 당장 KIA 중계권 포기하세요' 등 항의의 글을 올리며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고진영

한국 여자골프 빅스타 제주 총출동

내일부터 KLPGA 삼다수 마스터스 고진영·박인비·유소연 등 출전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가 전·현직 세계랭킹 1위 선수들과 함께 돌아온다. 현 여자골프 세계랭킹 1위 고진영(25)과 전 세계랭킹 1위 박인비(32)가 출전하는 KLPGA 투어 제주 삼다수 마스터스가 30일부터 나흘간 제주도 제주시 세인트포 골프리조트(파72·6500야드)에서 열린다. KLPGA 투어의 2020시즌 하반기를 여는 이번 대회는 총상금 8억원, 우승 상금 1억6000만원을 내걸었다.

고진영은 6월 롯데칸타타 여자오픈(공동 45위)과 한국여자오픈(6위)을 이어 약 한 달 만에 올 시즌 3번째 KLPGA 투어에 나선다. 고진영은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에 진출하기 전인 2017년 이 대회에서 우승했던 좋은 기억을 3년 만에 재현할 수 있을지 기대를 모은다. 박인비는 지난 2월 LPGA 투어 ISPS 한다 호주 여자오픈에서 우승한 이후 5개월 만에 대회에 나선다. KLPGA 투어 출전은 올해 들어 처음이다. 고진영·박인비와 함께 세계랭킹 1위 경험이 있는 유소연(30)은 지난달 한국여자오픈 우승을 이어 또 한 번 정상에 노린다. 이밖에도 롯데칸타타 여자오픈에서 우승하며 부활한 김효주(25), 지난해 LPGA 투어에서 신인상을 차지한 이정은(24), 일

본에서 활약해온 이보미(32)와 배선우(26) 등 경쟁한 해외파들이 대거 출격한다. 국내파 선두주자는 루키 유해란(19)이다. 유해란은 지난해 추천 선수로 제주삼다수 마스터스에 출전했다가 깜짝 우승을 차지하며 눈길을 끌었고, 올해는 KLPGA 투어에 정식 데뷔해 신인왕 포인트 1위를 달리고 있다. 대상 포인트 1위이자 상금 2위인 이소영(23), 올해 첫 다승(2승)으로 상금 1위에 오른 박현경(20), 대상 포인트 2위를 달리면서 시즌 첫 승을 노리는 최혜진(20) 등 대표 강자들도 출사표를 던졌다. 올해 제주삼다수 마스터스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무관중으로 열리며, 대신 기존 3라운드가 아닌 4라운드로 일정을 확대했다. /연철뉴스



박인비